

서암스님 법어집에서

“선은 가르쳐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음식을 먹어야 자기가 배부르지, 내가 배부르게 옆에 사람이 대신해서 먹어줄 수 없는 것처럼, 이 공부도 자기가 해서 스스로 이루는 것입니다.”(법어집1, 38쪽)

“선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바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래 ‘터 뒤를 선(禪)’ 자입니다. 집을 지어도 터를 먼저 닦아야지, 터를 안 닦고 집을 지어도 기울어집니다. 어디 가다가 잠시 앉으려 해도 터는 닦아야 하는 것이지요. 뼈죽한 돌에 앉을 수는 없어요. 그 돌에 앉으면 엉덩이가 찢리고 가시에 앉으면 가시에 찢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먼저 인간이 살아가는 터를 닦는 다는 그 말이 참선입니다.”(법어집2, 158쪽)

“꿈을 꾸고 있을 때는 잠을 깨지 않는 한, 옆에서 아무리 해도 꿈꾸는 사람의 꿈 세계를 관여할 수 없습니다. 같은 방 안에서 돌이 꿈을 꾸었다고 해서 똑같은 꿈이 꾸어지지도 않습니다. 또 내가 그 사람하고 같이 다니는 꿈을 꾸었다고 하여, 그 사람 꿈에서도 내가 같이 다닌 것은 아닙니다. 절대 독단적인 세계입니다.”(법어집1, 102쪽)

“깊이 들어가면 일 자체가 바로 공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일하면서 한편으로 공부하는 생각을 낸다면 벌써 어긋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본시 일하고 행동하는 것이 자기 주인인데, ‘내가 일을 한다’ 하고 생각하면 벌써 주인에서 한 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일과 공부가 따로 있다고 분별하고 있으면 무엇을 해도 반쪽거리뿐입니다. 주인 된 자세란 그 둘을 항상 하나로 생각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일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 진짜 인생이 구축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공부입니다.”(법어집2, 253쪽)

“우리 같이 못난 중도 가만히 앉아 있으면 누가 쌀 가마니며 몇 달 먹을 것을 갖다 주는데, 부처님은 어찌 되어서 성불하고도 돌아다니면서 얻어 먹었는가? 부처님께서 우리보다 복력이 없거나 공양 받을 자격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여기에 불교의 참된 뜻이 있습니다.”(법어집1, 288쪽)

온몸에 스미는 깨달음의 향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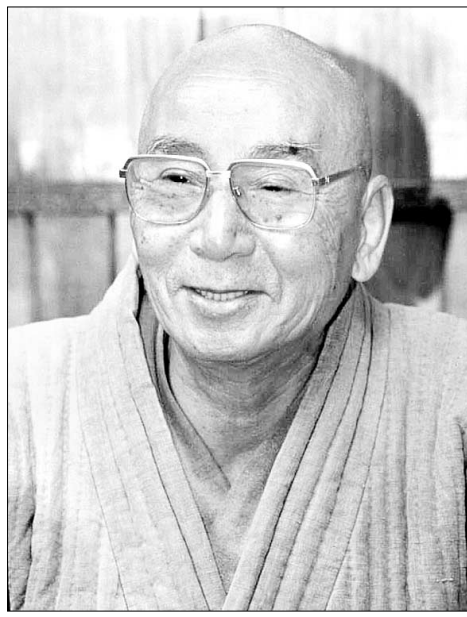
‘어디에도 걸림없이’

서암스님 지음  
정토출판 / 2만원



서암 큰 스님 스님에게서는 향기가 난다. 무어라 표현할 수 없지만 서암 스님과 함께 있다보면 느끼게 되는 따뜻함과 인자함, 자비로운 그 느낌. 수년 전 서암 스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느낌은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는다. 많은 이들이 서암 스님을 존경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스님만의 향기 때문이다.

서암 스님은 현재 살아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선승 가운데 한 분으로 꼽힌다. 1935년 화산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후 금강산 유점사, 마하연, 신계사, 대승사, 해인사, 망월사 등에서 생식을 하며 치열하게 수행을 해 왔다. 스님은, 79년 봉암사 조실로 추대된 후 20여년간 수많은 수행납자들을 지도해 왔다. 94년 조계종 종정에 추대



되었으나, 종단사태 발생 후 종정을 그만두고 방랑하나 짊어지고 운수 행각을 떠났다. 서암 스님은 2001년 봉암사 대중들의 간청에 의해 봉암사로 돌아와 후학들을 지도하고 있다.

이러한 서암 스님을 온전히 느끼기에는 모자라겠지만, 간접적으로나마 접할 수 있는 법어집 두 권이 나왔다.

‘마음 다스리는 법’ 등 답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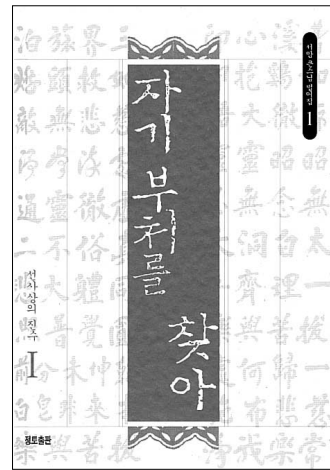
월간 ‘정토’에 실렸던 법어 정리

일반 불자들을 대상으로 한 법문집 <어디에도 걸림 없이(법어집1)>와 대담집 <자기 부처를 찾아(법어집2)>이다.

이 책은 88년부터 15년간 월간 정토에 실렸던 서암 스님의 말씀 가운데 대표적인 것들을 골라 분류 정리한 것이다. 참선 입문에서부터 생활선

‘자기부처를 찾아’

서암스님 지음  
정토출판 / 2만원



의 세계, 선의 진수, 인간성 회귀의 선, 정토세상 만들기 등에 대한 법문과 마음 다스리는 법, 참선 수행의 길잡이, 깨달음의 세계, 세상 속에서 사는 법 등에 대한 가르침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하지만, 서암 스님은 이러한 언어로서가 아니라 온 몸으로 부처님 가르침 따라 진실하게 사는 법을 보여주는 분이다. 서암 스님의 삶 그 자체가 바로 살아있는 법문이기 때문이다.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스님이 책머리에 쓴 ‘깨우침, 서암 큰 스님과의 인연’에 밝힌 서암 스님의 행적 하나하나가 그대로 불자들의 귀감이 되기에 충분하다.

이은자 기자 elee@buddhapia.com

짧은 글·그림 통한 삶의 지혜

어떤 이는 편견에 얽혀 있고 어떤 이는 망상에 얽혀 있네. 어떤 이는 청찬에 끌려 다니고 어떤 이는 욕심에 끌려 다니네. 그러면서도 자유인이라고 말하네. 그것들에 얽혀 있으면서 그것들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제멋대로 뛰어나다니고 자유인이라고 말하네.('자유인')

‘배고프면 밥 먹는다’

글·그림 이규경  
중이 거울 / 9천원



우리 마음의 정곡을 찌르는 짧은 글과 그림으로 가득한 <배고프면 밥 먹는다>는 제목 그대로 우리가 배고프면 밥 먹는 평범한 일상에서 삶의 지혜를 발견하라고 이야기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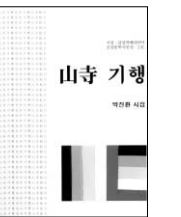
저자인 이규경 씨는 그림을 전공하고, 잡지사에서 일했으며, 현재 프리랜서로 활동중이다. 온 가족이 한번쯤 둘러봐도 좋을 만한 이 책은, 무심코 지나왔던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에서부터 우리 일상에서 펼쳐지는 모든 것들을 다시 생각하고 명상하게 한다.

시어로 맛보는 아름다운 산사

산과 절이 한 이름인 것은 산이 곧 절이요 절이 곧 산이 됴니니 산은 곧 부처요 부처 또한 산이 됴니니. ('용봉사' 중에서)

‘산시 기행’

박진환 지음  
조선문학사 / 9천원



<산시 기행>은 박진환 씨가 내놓은 열 아홉 번째 시집.

박 씨는 동아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문단에 데뷔한 이래, <귀로> <어둠고> <돌아보고 살기> 등의 시집을 발표했다. 현재 월간 <조선문학> 발행인 겸 주간이다. 이 시집은 수년전부터 북한산 도봉산을 비롯한 서울 인근의 산들을 산행하며 그때마다 만났던 고찰과 명찰, 이름없는 작은 산사에 대한 느낌들을 시로 옮긴 것이다. 박씨는 이 시집에서 산사의 아름다운 풍경을 노래하고, 한편의 그림을 그리듯 사찰의 구성구석을 묘사한다.

새로나온 책

‘실천보현행원’

이종린 지음  
불광출판사 / 5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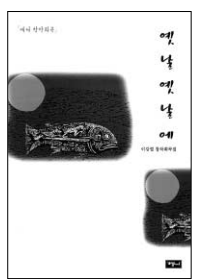
중생공양이 부처님 공양이며, 중생 공양이 어느 수행 못지않은 살아있는 현대인의 활구 참선이라는 생각아래 중생 공양의 원을 세우고 세간 속에서 수행중인 흥익소아와 원장 이종린씨가 쓴 것이다.

행원에 대한 이론과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행원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부처님이 밝혀놓은 보현행원 수행법 실천을 통해 삶의 터가 바로 수행처가 되고 생활 자체가 수행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한다.

‘옛날 옛날에’

이강렬 지음  
에니출판사 / 1만원



<옛날 옛날에>는 70·80년대 우리나라 소극장 운동의 메카였던 극단 ‘창고극장’의 대표로 있으면서, 수많은 문제작을 기획 공연했던 극작가 이강렬 씨의 창작회고집이다.

이 책에는 7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발표했던 이 씨의 작품 가운데 단막극을 중심으로 ‘옛날 옛날에’ ‘애기둥이’ ‘어머니와 아들’ ‘어허둥둥 세참판’ ‘신살의 원표’ 등 우리 사회의 모순과 분단 현실, 인간의 본질에 대한 문제점을 살린 7편의 희곡이 실려 있다. 일본어 번역판으로 일본에서 동시 출간됐다.

‘정좌수도강의’

남회근 지음 / 신원봉 번역  
씨앗을 뿌리는 사람 / 1만4천5백원



<정좌수도강의>는 13억 중국인을 고전 앞에 무릎 꿇게 한 남회근 선생이 수십년에 걸쳐 수많은 정좌(正坐)수련자를 직접 만나 체험한 결과를 토대로 쓴 책이다.

남회근은 1918년 중국 절강성에서 태어나 어려서 유학을 공부하고, 20대에 불교에 귀의하여 득도했다. 사천성 아미산 대평사에서 3년간 폐관하여 두문불출한 채 수도하였고, 그 이후엔 티베트까지 가서 밀교를 깊이 연구했다. 이 책에는 그가 연구하고 수행한 유교·불교·도교의 수행법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동생의 비밀상자’

이혜경 글 / 권인수 그림  
가교출판 / 8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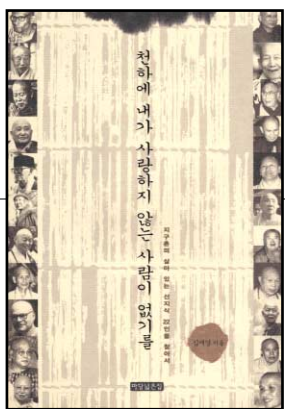


<동생의 비밀상자>는 어려움에 처해있는 친구와 그 친구를 바라보는 우리 어린이들의 따뜻한 시선을 이야기로 옮긴 것이다. 내가 편하기 때문에 모두 나 같을 것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주변을 돌아보면 텔레비전 방송에서나 들었던 밥을 굶는 친구가 바로 내 옆의 친구이며, 왕따를 당하는 친구가 바로 내 친구라는 걸 일깨워 준다. 함께 고민하며 우리 어린이들의 성장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동화책이다. 두 아이의 엄마인 작가 이혜경 씨가 글을 쓰고, 화가 권인수 씨가 그림을 그렸다.

금주의 베스트도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화 틱 낫 한 명진출판사
2 감산자전 감산 스님 여시아문
3 한영불교사전 서광 스님 불광출판부
4 지허스님의 차 지허 스님 김 영 사
5 천수다라니와 붓다의 가르침 전 재 성 한국해탈선정협회
6 얼굴 이지엽 외 고요아라
7 화엄경 법정 스님 동쪽나라
8 천하에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기를 김 재 경 마당밭은진
9 아버지담마길라잡이 대림 각묵 스님 초기불학연구원
10 역사속의 한국불교 이 이 화 역사비평가
도서 안내: (02)737-0695
인터넷·전화 도서 주문
yosiamun.com
책방 여시아문 전화 (02)737-0695

천하에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기를

지구촌의 살아 있는 선 지식 22인을 찾아서



김재경 지음 | 신국판 | 288쪽 |

불법의 큰길을 찾고 깨달음의 열매를 얻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책이 등대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 살아있는 남·북방 불교의 고승을 최초로 한자리에 모셨으며,
☞ 세계 4대 생불인 달라이 라마, 송산, 틱낫한, 마하 고사난다 스님을 함께 소개하였습니다.
☞ 남·북방 불교의 다양한 수행법을 소개함으로써 상호 이해와 발전을 기대하며,

틱낫한 스님 3월에, 고사난다 스님 7월에 방한!!

